

“설원 나는 저 아이가 제 딸인 것 같습니다”

55세 이 모씨 “출생·입양과정 흡사하다”
본보 취재진 이메일 통해 친딸 확인 의사
1995년 미 입양 프리스타일스키 이미현
평창서 ‘친부모 찾기’ 소원 이룰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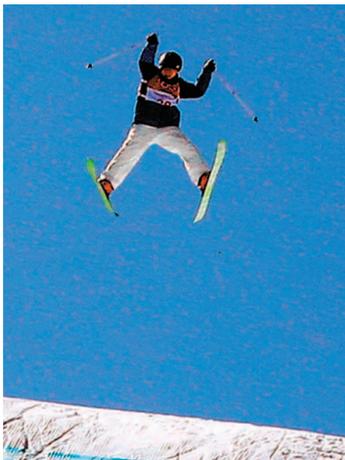
**본지
단독**

대한민국 프리스타일스키 국가대표 이미현(24)에게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그 누구보다 간절한 무대였다. 소망은 단 하나. 한 살 때 헤어진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람이었다.

1994년 가을에 태어난 이미현은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자신의 친부모는 물론 다른 혈연조차 연이 끊긴 채 마나면 이국에서 새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양부모 품에 안긴 이미현은 누구보다 씩씩하게 자랐다. 아픔을 딛고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은 스키였다. 3살 때 처음 종목에 접한 뒤 이내 푹 빠져들었고, 본격적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부상 등이 겹치면서 이미현은 선수의 꿈을 접었다. 그리고는 성인의 몸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였다. 국내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미현의 존재는 곧 대한스키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전해졌다. 출중한 실력을 지닌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있다는 입소문이 그렇게 퍼졌다.

평창올림픽에 맞춰 전력을 꾸리던 대한스키협회는 이미현에게 태극마크를 제안했다. 이미현



프리스타일스키 이미현은 어린 시절 생이별한 친부모와의 재회를 꿈꾸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비록 만족스러운 성적은 거두지 못했으나 스포츠동아를 통해 “내가 친부인 것 같다”는 연락이 전해져 왔다. 확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미현의 간절한 마음이 뒷배에게 닿기를 전 국민이 응원하고 있다. 태극기를 펼쳐든 이미현(왼쪽)이 20일 휘닉스소노경기장에서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정유진과 기념 사진을 남기고 있다(오른쪽 사진). 평창 1 연합뉴스



은 이를 흔쾌히 승낙했다. 평소 꿈꾸던 무대에 나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친부모와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이미현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마다 “부모님을 꼭 찾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를 치른 17일 이후에도 이렇다할 희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런데 21일, 스포츠동아 취재진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내가 이미현의 친부인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짧은 편지였다. 곧 연락이 닿

은 발신인은 경남 창원에 거주 중인 이모씨였다. 올해로 55세인 이씨는 “최근 여러 지인들로부터 이미현 선수의 이야기를 접했다. 출생과 입양과정이 당시 상황과 흡사하고, 얼굴 역시 유사한 부분이 많으니 한 번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미현 선수의 기사를 찾아 보던 중 직접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갖난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겨야했던 아픔을 전한 이씨는 “7~8년 전쯤 친

말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에는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친말을 찾겠다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 조심스럽게라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은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해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 간절한 사연이 더 널리 퍼지게 된다면, 이미현이 향후에도 뒷배를 만날 수 있는 희

망은 더욱 커지게 된다. 스포츠동아가 고심 끝에 보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다.

취재진은 일련의 과정을 대한스키협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이미현을 돕기로 한 대한스키협회 측은 “선수 본인이 친부모님을 찾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25일 폐회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로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평창 1 고훈 기자 shutout@donga.com



김은정

후지사와

‘매의 눈’ 김은정 vs ‘조용한 강자’ 후지사와...한·일 머리싸움

(한국 스키)

(일본 스키)

여자 컬링, 23일 오후 8시 운명의 준결승
예선 1위·압도적 응원 ‘컬링데이’ 기대

2018평창동계올림픽 돌풍의 주역인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을 만난다. 조별예선에서 당한 불의의 일격을 만회하고, 결승행을 확정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은정(28)-김경애(24)-김영미(27)-김선영(25)-김초희(22·이상 경북체육회)로 구성된 ‘팀 김’은 23일 오후 8시55분 강릉 컬링센터에서 예선 4위(5승4패)를 기록한 일본과 준결승전을 벌인다. 대표팀은 토너먼트 승부가 열리기 전인 풀리그 예선에서 8승1패의 눈부신 성적으로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지었다.

올림픽 컬링은 예선에 참가한 10개 팀 중 상위 4개 팀이 예선 다음 단계인 준결승전에 진출한다.

컬링 여자 대표팀 예선 전적(8승1패·1위)

구분	상대팀	결과	구분	상대팀	결과
1차전	캐나다	8-6 승	6차전	스웨덴	7-6 승
2차전	일본	5-7 패	7차전	미국	9-6 승
3차전	스위스	7-5 승	8차전	OAR	11-2 승
4차전	영국	7-4 승	9차전	덴마크	9-3 승
5차전	중국	12-5 승			

*OAR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출전선수

1위-4위, 2위-3위가 맞붙는 규정에 따라 대표팀의 상대는 4강행 막차를 탄 일본으로 결정됐다.

일본의 국제컬링연맹 기준 세계랭킹은 6위다. 8위에 자리한 한국 대표팀과 큰 차이는 없다. 대표팀이 예선에서 승리를 거둔 세계랭킹 1~5위(캐나다~스위스~OAR~영국~스웨덴)와 비교하면 전력의 한참 떨어지는 팀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올림픽 조별예선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패배를 안긴 팀이다. ‘팀 김’은 지난 15일에 열린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일본에 5-7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경기 중반까지 앞서가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으나 후반에 연달아 실수를 범해 최종 점수가 뒤집혔다.

한국은 예선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와신상담’의 의지가 강하다. 유일한 예선 오점을 남긴 일본을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 준결승에서 ‘숙적’ 일본과의 만남은 가히 ‘운명의 맞대결’이라 표현할 수 있다.

기세 면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압도적인 홈팬들의 응원과 예선 1위를 차지했다는 자신감은 큰 힘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국 대표팀은 일본에게 예선 첫 패를 당한 뒤 내리 7연승을 달렸다. 세계의 스타 선수들을 연달아 쓰러뜨리며 여러 외신으로부터 ‘평창올림픽의 깜짝 스타들’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다.

승패 향방은 역시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맡고

있는 스키(주장)의 두뇌 대결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 한국은 탁월한 샷 감각과 팀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김은정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대표팀의 맏언니이기도 한 김은정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분석력과 스톤의 라인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관찰력으로 한국의 대외 진을 이끌고 있다. 일본의 스키인 후지사와 사츠키(27)는 차분한 태도와 작은 목소리로 김은정과 대조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선수다. 흔히 말하는 ‘조용한 강자’ 스타일로 뒤에서 선수들을 이끌며 팀을 4강에 올려놓았다.

한국과 일본의 준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둔 팀은 스웨덴과 영국의 준결승전 승리 팀과 대회 폐막일인 25일 결승전을 치른다. 동메달결정전인 3-4위전은 하루 전인 24일에 열린다.

강릉 1 장은 기자 award@donga.com

편집 1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한글 인터넷 주소: 동아전람

관람안내

2018 동아 건강산업 박람회 Dong-A Health Industry EXPO 2018

제2회 행복한 노후설계 박람회 The 2nd Happy Senior Plan EXPO

제3회 서울상조·장례문화박람회 The 3rd Seoul Mutual Aid & Funeral Culture Expo

✓ 기간 : 2018. 2. 23(금) ~ 2. 25(일)

✓ 장소 : 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앞)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대치동 514 SETEC)

✓ 관람시간 : 오전10시 ~ 오후6시 (토·일요일도 동일)

✓ 전시품목 : **건강산업** 건강의료기기 / 헬스 및 운동용품 / 다이어트 용품 / 건강 의료서비스 / 건강기능식품·음료 / 건강뷰티 / 수면 및 힐링레저 / 기타 건강관련 제품

노후설계 금융·보험 / 제테크 / 전월주택 / 시니어스타워 / 실버용품 / 실버여행·레저 / 기타 실버관련제품

상조·장례 상조서비스 / 장례산업 / 장례용품 / 장묘산업 / 제사 및 추모관련제품 / 상조·장례문화관련기관 / 기타 상조·장례관련업체

■ 세미나 일정

	2월 23일(금)	2월 24일(토)	2월 25일(일)
11:00 ~ 12:00	“노후준비의 기본, 국민연금 100% 활용하기” 국민연금공단 김중우 팀장	“100세대! 스트레스 자기힐링법” 브레인트레이닝 박종찬 수석트레이너	“임플란트시술, 100세 치아건강 설명서 및 치아보존 관리법” 포스크리프그룹 박세진 원장
13:00 ~ 14:00	“홍겨울로 소통하는 슈퍼시니어” 이벤트마치오/마나리크개발원 유규종 대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부동산재테크 전략”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	“2018년 노후를 대비하는 부동산 투자전략”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최충현 이사
14:30 ~ 15:30	“충청도 무탈살상 침상대림(염습시연)” 상징풍의예원 김근태 대표, 우포 이사	“웃기 ‘여여 여여’ 기음신님! 힐~힐 날아라(입관시연)” (사대현장예제도시행회 김성민, 오승환, 박정영, 이세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안, 백내장, 노인성안질환! 어떻게 검사하고 관리해야 할까?” 드림성모안과 구대형 대표
16:00 ~ 17:00	“자기조절을 통한 건강관리” 뇌교육이카데미 전문위원 장상철 팀장	“2018년 트렌드로 본 은퇴 후 실패하지 않는 창업 방법” 한국창업경제신문 김정민 대표	“시니어 플러스, 장수건강비결” 심육서울병원 조원용 박사